

저출산 정책의 경향 분석과 정책 제안

강 은 주(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률이 감소하여 결혼기피 현상과 함께 결혼지연 현상으로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감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이고(메디컬투데이,2010.3.3)¹⁾, 맞벌이 부부는 지금 ‘출산 파업’중이며(뉴데일리,2010.3.8)²⁾ 양육비 부담에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자 중산층은 몸을 사리고 있다(국민일보,2009.12.10)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재생산 문제와 노동력 감소, 노인 부양비용 증가, 국가 경쟁력 쇠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사회보장, 노동시장 문제, 아동의 양육환경 문제, 노인과 장애인보호의 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제시하고 있다(유계숙 외, 2007)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출산지원정책(‘08-’10)⁵⁾의 경향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혹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이고 보다 실현가능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때, 저출산 관련 정책을 임신·출산 정책 그리고 돌봄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08년 임신·출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축하금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임신부,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임신부 철분제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시출산비 지급,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으며, 돌봄을 위한 정책으로는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2자녀 이상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육아휴직,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이 있다. 2009년에는 2008년의 정부출산지원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임신·출산을 위한 정책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모유수유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이 추가되었고, 돌봄 영역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육아를 위한 정책에 추가되어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2008년 정부출산지원정책과 2009년 정부출산지원정책을 모두 포함(명칭변화 :’08-’09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10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08-’09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10 난임 부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08-’09 산모 도우미 서비스→’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임신·출산을 위한 정책에 추가하였고 돌봄 영역에서는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육아를 위한 정책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출산이라는 여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가정 내 양성평등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부성 휴가제도의 도입, 부모 휴가 내 남성할당제 등 남성들도 가사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남성들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반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차원 등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전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도 보다 다양화되어, 출산 장려 뿐 아니라,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권리, 개개인의 역량과 인적자원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양육·교육의 과정, 부모역할의 수행 등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1) 메디컬투데이(2010). 지난해 합계출산율 ‘세계최저’, 저출산특위 가동돼. 2010년 3월 3일자
- 2) 뉴데일리 사회(2010). 맞벌이 부부는 지금 ‘출산 파업’중. 2010년 3월 8일자
- 3) 국민일보(2009). “하나만 낳아 잘...” 몸사리는 중산층... 양육비 부담에 다산 기피 평균 1.54명 최저. 2009년 12월 10일자
- 4) 유계숙 외(2007). 성별과 세대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3.
- 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index.jsp>)